

SK C&C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30여 가지에 이르는 고도의 정형화, 표준화된 아웃소싱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사 IT 자산의 가용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 한다.

SK C&C(주)

SK C&C(대표 윤석경, www.skcc.com)는 정보통신 분야를 21세기 주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SK그룹의 희망찬 마스터 플랜에 의거, 90년대 초 설립되었던 '대한텔레콤'과 'SK컴퓨터통신'이 98년도 12월 합병을 함으로써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텔레콤은 그룹 차원의 이동통신사업 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1991년 4월 13일 설립되었고, SK컴퓨터통신은 1990년 10월 YC&C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회사는 1996년 5월 관계사 전산 기능/인력/조직 통합 및 'SK컴퓨터통신 주식회사'로의 사명 변경 이후 본격적인 IT서비스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50%가 넘는 초고속성장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던

SK C&C는 2004년을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달성의 해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부시장 기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기회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BPO, 유비쿼터스 등 미래 성장 사업들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Total service provider 모델

시절인 1998년 12월 1일, 정보통신기업인 대한텔레콤과 정보기술전문기업 SK컴퓨터통신이 합병을 하고 사명을 'SK C&C'로 정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이라는 하이 시너지의 결합을 통해 SK C&C는 정보통신 컨설팅 및 SI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계 일류의 IT전문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IT아웃소싱 전문 기업을 표방하며, 12개 관계사의 IT자산을 인수하는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 IT아웃소싱 서비스 프로세스 구현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완비하였다.

한편, 최근 몇 년간엔 사업구조 개선, 사업수행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기업문화 구축 등 'SUPEX2000'의 강력한 실천을 통해 SI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익률 신장을 시현하는 등 업계 3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IT 아웃소싱, SI, 컨설팅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세계 일류 수준의 토털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보자는 SK C&C의 비전을 달성하는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SK C&C는 2004년을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달성의 해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부시장 기반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SK텔레콤, SK(주) 등 산업별 국내 선두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운영, 선진 수준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 외부 IT 아웃소싱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아웃소싱 서비스 1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텔레콤 및 에너지/서비스 분야의 사업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화 솔루션 개발 및 위성 DMB, DMC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의



▲ 남대문로 SK C&C본사에 위치한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를 담당하는 커맨드 앤 컨트롤센터 내부

선도기업 입지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기회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BPO, 유비쿼터스(Ubiquitous) 등 미래 성장 사업들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투/개포 시스템, 이동통신 운영 시스템 등 국내에서 검증된 솔루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다.

대표이사 - 윤석경

윤석경 대표이사(53세)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용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77년 SK글로벌에 입사하면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2001년까지 SK글로벌에서 뉴욕지사(82년), 의류수출부장(89년), 일반상품본부장 상무(96년), 패션본부장(97년), 국내 마케팅부문장겸 기획담당임원(2000년), 글로벌사업총괄상무(2001년)를 역임했다. 2002년부터 SK C&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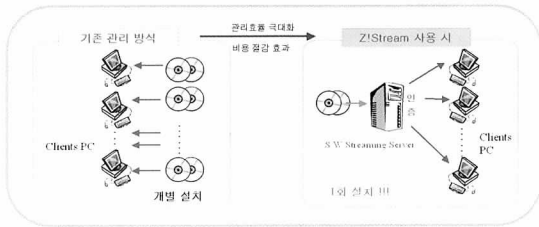
윤 대표는 투명, Open, 책임의 경영을 모토로 하여 고객만족과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소프트온넷(주)

응용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서비스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건전한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개발사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육성한다.



Z!Stream 개요

소프트온넷(주)(대표 송동호, www.softonnet.com)는 Distribute Virtual Paging(DVP)기술을 통하여 '모바일 비추얼 데스크탑' 환경을 실현한 High Technology 선도 기업이다.

소프트 온넷은 1999년 법인전환과 함께 총 3억원 규모의 원격교육 솔루션을 핀란드 Teleste Educational사(2십5만 달러 상당)와 일본 ALPS SYSTEM INTEGRATION CO.,LTD. 등에 수출했다. 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 우수기술 지정통지서를 받았다.

다음 해에는 미국 현지법인 'SOFTonNET USA'를 설립하는 한편 원격교육 솔루션을 수출(일본 Fuji Denki사, 총 10억원)했다.

자본금을 증액(17억5천만원, 투자유치-LG벤처투자, 보광창업투자, STIC-IT벤처투자)했으며, 더존디지털웨어 주식회사와 대구과학대, 경산대, 경운대, (주)루넷, 영남대, 세명대 등에 ASP솔루션(Z!Stream)을

공급하는 한편, 일본 후지전기총설과 합작법인 SOFTonNET Japan을 설립했다. 또 포스코 연수원 무선 랜, 무교재 강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1년에는 더존디지털웨어 주식회사에 ASP 솔루션을 공급하는 한편 포스코 SOD 솔루션 공급 및 ASP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CA(Computer Associate)사의 자회사인 iCanSP와 조인트 마케팅 제휴를 체결했다.

2002년에는 전자신문과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S/W 신상품대상 5월작으로 정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인 'Good Software' 마크를 획득했다.

2003년에는 70여 대학교, 20여 초중고, 20여 관공서 및 기업 등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렸다.

소프트 온넷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S/W Streaming'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분산 가상 페이징(Distribute Virtual Paging : DVP) 기술을 기반으로 윈도우즈 S/W Streaming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SOD(Software On Demand) 기술도 있다. SOD 기술이란 사용하고 자 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SOD서버에 단 한번 설치해 두고, 사용자 PC에서 별도의 인스톨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S/W를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 온넷의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ZStream'이 있다.

'ZStream'은 사용자가 응용 S/W를 서비스 받아 '모바일 버추얼 데스크탑'을 구축 가능케 하는 미들웨어 솔루션으로, 서버에 저장된 응용 S/W를 Local User PC상에서 클릭-엔-런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또 응용 소프트웨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중앙 서버로부터 '분산 가상 페이징(DVP)'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가져와 사용자의 PC에서 실행할 수도 있다.

S/W의 중앙공급·관리를 위한 ASP 솔루션인 이 기술은 소프트 온넷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Softricity, Stream Theory, AppStream 등 5개 내외의 경쟁사가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업무 제휴, 협정을 추진 중(MS Japan, MS Canada, MS Australia 등)에 있다.

이 솔루션은 관리자 측면에서는 TCO비용절감과 효율적인 라이선스 관리, 불법 S/W 근원적 차단,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저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며, 고가, 희귀 S/W의 시분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소프트온넷의 'ZShield'는 PC방, 교육장, 학교, 학원 등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보호, 복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비정상 작동에 의한 시스템 재정비, 관리 등이 불필요하므로 유지비용(시간,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컴퓨터를 비정상

적으로 작동시켜도 항상 원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 개선에 효율적인 솔루션이다.

소프트 온넷의 일본 수출 주력 상품인 'ZInteractive(일본 수출시 제품명 : Ezscommunication)'도 주목할 만하다. 이 솔루션은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형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멀티미디어 PC교실을 더욱 편리하게 WYS/WYD(What You See is What You Do)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및 음성 위주의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다양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칠판 위주의 교육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시스템으로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캠코더, VCR, TV 등의 장비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옵션 Card 장착 시)

소프트온넷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서비스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건전한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개발사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존 웹 및 WBT방식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가 갖는 문제점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혁신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보다 편리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갖는 미래정보화 사회 구현에 일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표이사 - 송동호

송동호 대표이사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영국 New castle 대학교 전산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ETRI 컴퓨터 연구단 분산 멀티미디어 연구실장, SRI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를 거쳐 한국통신 중장기 과제 심사위원, 미국의 Distributed Multimedia Systems Workshop Program Committee, IEEE Multimedia Magazine Program Committee, 한국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1999년부터 현재의 소프트 온넷(주)를 이끌고 있다.

